<장려>

제목 : 내가 생각하는 남북 통일

타이베이한국학교 5학년 전혜린

저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외국에서 자라서인지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아직 끝내지 않고 휴전 중이 라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분단 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옛날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나라를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신하여 나라를 보살펴 준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그러다 보니 북한은 자연스레 소련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과학 기술과 여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60년 정도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어나 과학기술이나 경제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먹고 놀기에 바빠 북한 경제가 추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동·서가 갈라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는 우리나라와 굶어죽어 가고 있는 불쌍한 북한 동포라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불쌍한 국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통일이 정말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저는 **"통일"**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절실하게 와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민족, 한 가족이라는 생각과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반드시 독일처럼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적인 통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 지금 우리는 같은 나라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얽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에 함께 참여하며 응원을 같이 한다면 서로 한 형제이며 동포임을 깨닫게 되고 서로 통일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언어와 문화 차이가 심해서 각종 연구 발표회나 문화 교류를 통한다면 남북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어 시간에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파마를 북한에서는 **"볶음 머리"**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볶음 머리라는 말 자체는 알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나 우리나 같은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미적으로 다르게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의사소통에도 많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통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언어와 문화적인 면에서 먼저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평화적인 통일 방법은 우리나라가 먼저 아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만, 이후에 통일일 되더라고 북한과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결혼을 하는데 남자도 여자도 모두 가진 것이 없다면 어떻게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어려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만 북한과 통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을 이루는 최고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멋진 통일 국가의 주인공이 될 것을 꿈꾸며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